

# 도쿄, 올림픽 그리고 골판지

오윤정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 | 도쿄, 올림픽 그리고 골판지

도쿄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외원 은행나무 가로수길 입구 좌우에 골판지와 파란천막으로 만든 성(城)이 나타났다.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인 신국립경기장을 중심으로 도심 아홉 개 장소에 가설 건물이나 오브제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파빌리온 도쿄 2021》(2021. 7. 1.~ 9. 5.)의 일환으로 현대미술가 아이다 마코토(会田誠, 1965~)가 제작한 <도쿄성>이다. 《파빌리온 도쿄 2021》은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빌려 도시의 새로운 경관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아이다 마코토 외에도 무한 반복하는 물방울 무늬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 1929~),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세지마 가즈요(妹島和世, 1956~) 등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 미술가와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프로젝트 공식 사이트에 실린 아이다의 <도쿄성>에 대한 해설이다.

아이다 마코토는 골판지와 파란천막으로 두 개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골판지와 파란천막은 아주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견고성을 갖춘 미더운 소재로 항구성이 아닌 가설성도 상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어, 아이다는 1995년부터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이 파빌리온은 이러한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꺾이지 않는 인간의 유연한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겁고 단단한 고가의 항구적 소재만을 사용한 현대조각 등에 대한 비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석루는 과거 에도성을 지지하던 돌담을 사용해서 신궁 외원 조영 시에 건설한 것으로, 간토대지진 후의 Barack 건설 지휘관이자, 초등학교의 철근콘크리트화를 추진했던 건축구조가 사노 도시카타(佐野利器)가 계획·건설한 것입니다. 그 석루 위에서 있는 골판지와 파란천막의 성은 도쿄로부터 아직 재해의 조흔이 남아 있는 각 지방으로 보내는 “함께 힘냅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쿄에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대재해에 대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sup>1)</sup>

골판지와 파란천막이라고 하는 작품 소재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값싸지만 버티고 견뎌내는 힘이 남다른 두 소재를 고른 작가의 선택이 한편으로는 현대조각에 대한 비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해에 굴하지 말고 힘내자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골판지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소재다.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를 조롱 혹은 희화화하는 사진과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며 올림픽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골판지 침대가 무너져 사상자가 나왔다는 뉴스는 들은 바 없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선수촌의 가구들은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의 입주를 위해 처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저렴하지만 견고하고,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며, 재활용도 가능한 소재가 제격이다. 골판지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종이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목받는 친환경 재료 중 하나로, 일본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은 종이를 활용한 구조 설계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일본의 또 다른 프리츠커상 수상자 반 시게루(坂茂, 1957~)가 즐겨 사용하는 건축 재료 역시 종이로 만든 튜브다. 반은 1994년 내전을 겪은 르완다를 시작으로, 1995년 일본 고베, 1999년 터키, 2001년 인도 구자라트, 2008년 중국 쓰촨, 2010년 아이티, 2011년 일본 도호쿠 등 재난 지역을 찾아 집을 잃은 난민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를 종이 튜브를 사용해 건축했다. “혁신적인 재료 사용과 인도주의적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반은 201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반도 주장하듯이 현대 사회에서 건축의 내구성이란 재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한참을 더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 그 건축은 철거를 피할 수 없고, 임시 사용을 염두에 두고 종이 튜브로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원해서 계속 사용하면 영구 건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반이 재난 지역에 임시로 지은 종이 튜브 성당 중에 교인들이 희망하여 철거하지 않고 지속 사용한 예가 있다. 아이다 마코토의 골판지와 파란천막이 “무겁고 단단한 고가의 항구적 소재만을 사용한 현대조각 등에 대한 비판”이라면, 반 시게루의 종이 튜브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수명 단축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강하고 비싼 재료로 지어지는 과시적 하이테크 현대건축에 대한 비판이다.

흥미롭게도 예술가들보다 앞서 이 대안적 재료들의 장점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들은 따로 있다. 바로 도쿄의 홈리스들이다. ‘홈리스들의 홈’의 주재료가 바로 골판지와 파란천막이다. 《파빌리온 도쿄 2021》사이트에도 소개된 것처럼 아이다 마코토는 1995년 골판지를 사용해 <신주쿠성>이라는 작품을 제작했다. 이때 작가에게 영감을 준 것이 바로 신주쿠역 동쪽 출구 지하도에서 생활하던 홈리스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시에 초대되어도 작품 재료를 마련할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예술가였던 아이다는 홈리스들에게 힌

터를 얻어 주워온 골판지 박스로 작업을 했다. 즉 아이다의 <도쿄성>의 원점에는 홈리스들의 흠이 있다. 사실 이러한 작가의 이력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골판지와 파란천막으로 지어진 <도쿄성>을 보면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홈리스들의 흠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홈리스들의 흠을 연상시키는 <도쿄성>이 설치된 도쿄 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실제 홈리스들은 도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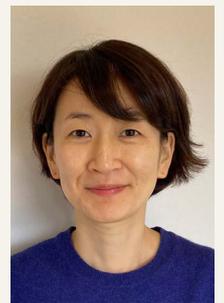
지난 7월 30일 BBC는 “올림픽: 도쿄 홈리스의 숨겨진 모습” (Olympics: The hidden sight of Tokyo’s homeless)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홈리스들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숨어 달라”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요구를 했다는 요지의 뉴스이다. BBC 보도가 있는 후 국내 언론들도 발 빠르게 이 뉴스를 실어 날랐다. 8월 1일에는 L.A.타임즈 역시 “올림픽 성화 밑에 도쿄의 가장 취약한 거주지 감춰” (Beneath the Olympic flame, some of Tokyo’s most vulnerable stay tucked out of view)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 문제를 다루었다. BBC 뉴스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올림픽을 준비하며 소위 “도시 정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쿄만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홈리스 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도, 1988 서울 올림픽에서도 일어났고, 2028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이 반복을 멈추려면 홈리스들의 흠을 강제로 철거했는가 아닌가, 그들을 쉼터로 적절히 이주시켰는가 아닌가보다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들이 눈에 띄는 도시는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충분히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라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깨끗해야 하는가?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시를 ‘깨끗이’하는 행위에 대한 의문은 1964 도쿄 올림픽 때에도 제기되었다. 도쿄도는 1962년 12월부터 매월 10일을 “수도 미화 데이”로 지정하고 도민들을 동원하여 노면 청소, 가로수 정비, 꽃 식재, 광고물 정리 등 대대적인 도쿄 청소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전위예술가 그룹 하이레드센터(ハイレッド・センター)는 이 관제캠페인을 패러디한 <BE CLEAN! 수도권 청소 정리 촉진 운동>이라는 작업을 선보였다.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하이레드센터 멤버들이 긴자 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방바닥을 훑치듯 보도를 손걸레질하고, 옆에서는 돋보기를 들고 바닥에 붙은 오물을 제거하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의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거나 코털을 제거하는 등의 ‘수도 미화’를 실시하는 퍼포먼스이다. 난센스 청소작업에 하이레드센터 멤버들이 지나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수도 미화 데이”의 모습과 겹쳐지며 도쿄도의 수도 미화 캠페인을 풍자했다.

손님맛이를 위해 도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발상은 반세기 이상 전의 1964년으로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깨끗함의 강박은 위생에 대한 사고에서부터 온다. 위생이 근대 서구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사용한 개념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은 일본이 서구만큼 위생적임을 증명하려 애썼고,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가 위생적이지 않음을 강조해 차별했다. 올림픽 개최에 합당한 ‘깨끗한’ 도쿄를 보여주기 위해 초조해하는 모습은 위생에 대한 집착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위생의 사전적 정의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면, 눈에 보이는 홈리스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쪽은 어디인가?

이번 도쿄 올림픽은 21세기 성숙도시에 걸맞은 행사임을 표방했지만 과연 홈리스들을 숨기는 도쿄를 성숙한 도시라 할 수 있을까? 도쿄가 성숙도시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은 올림픽이 성숙한 도시에 적합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성장이 한창인 도시에 적합한 행사이다. 고도경제성장기 도쿄는 1964 올림픽을 촉매로 압축적 도시개발을 시도했고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을 겪은 일본은 더 이상 성장하는 사회가 아니다. 장기불황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재해 등의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을 성숙사회로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가능성, 다양성, 공동체성 등을 일본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키우는 발상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도는 성장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올림픽 유치에 몰두했다. 한편 이번 올림픽은 “부흥 올림픽”이란 이름으로 재후의 불안을 숨기면서 재해의 흔적 또한 감추었다, 파란천막은 홈리스들의 홈뿐 아니라 재해 복구 현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소재다. 아이다 마코토의 <도쿄성>은 올림픽을 위해 무리하게 숨겨진 존재들의 환유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를 모토로 하는 올림픽은 거대 규모의 기념비적 건축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이 필요한 메가 이벤트다. 반면 성숙도시는 ‘느리고 약한’ 이웃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작고 낮은’ 공동체를 지향한다. 도시의 경관은 그 도시에 사는 이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닮는다. 도쿄의 새로운 경관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골판지와 푸른천막의 <도쿄성>이 등장한 것을 보고 도쿄가 성숙할 기회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기를 기대해 본다.



**오윤정**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